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 of Family Streng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 탁승현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성희**

서울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박사 구혜령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

Master Tak, Seung Hyun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

Professor Kim, Sunghye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Ph. D. Koo, Hye Ryou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based on surveys,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undertaken by students from the Jeonnam area.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and the statistics used for analysis wer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family strength of the subjects was above average. Second, family streng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howed differences in terms of gender, major satisfaction, career counselling and major area. Third,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 김성희(ksh@sunchon.ac.kr)

observed positively in almost all sub-categories. Forth,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family strength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청소년(youth)

I. 서론

청소년기 대학생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자수는 2001년 195명에서 2009년 249명으로 증가하였다(한국대학신문, 2011.05.27). 자살 사유는 2009년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78건, 남녀 문제가 53건, 가정문제 30건, 직장취업문제가 28건, 경제문제가 16건으로 직장취업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봉환, 1997). 그러나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011년의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5.91%에 그치고 있다.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을 지지하는 체계로서 진로교육과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부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진준혁, 2010).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로서 가족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중등 청소년기에 집중되

어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의 영향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특성인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개별화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가정생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비의 증가, 취업준비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의 건강성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으므로 가족에게서 받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은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를 지도함에 있어 가족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이명숙, 2003; 장범식, 2007; 진준혁, 2010 등). 가족의 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가족건강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 진로지도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족건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수준과 더불어 이와 관련 변인을 조사하고,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 지도에 가족의 건강성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 진로지도에서 간과되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을 밝힐 것으로 보며, 건강가족 교육과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 개념 및 관련 연구

건강가정의 용어로도 사용되는 건강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며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조희금 등, 2005). 건강가정은 기본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가지면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 역할을 공유하는 가정 역할,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사회와의 관계, 건강한 사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하는 문화적 요소를 갖는다(조희금 등, 2005).

가족건강성 개념은 크게 가족중심개입과 사회심리적 관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이혜경, 2008). 즉, 건강가족은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형제-자매 관계보다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보므로 가족전체를 위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중심개입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가족건강성 개념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족의 사회 심리적 관계를 중시한다(권대희·오윤자, 2004; 윤중희, 2006; 이혜경, 2008). 건강가족의 개념은 역기능적 가족의 병리적 측면을 강

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이나 강점에 관심을 가지므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예방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와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은주·유영주(1995)는 외국 척도를 통합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최선희(1999)는 가족건강성의 영역을 의사소통, 유연성, 자율성, 신뢰/지지, 애정/사랑,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가족신념체계로 분류하였으며, 김현주·이혜경(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척도를 개발하였다.

대학생의 가족건강도를 연구한 강소라·박혜인(200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소도시 이하에서 성장한 대학생이 대도시에서 성장한 대학생보다 가족이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며, 자아 통합의 수준이 높을 때 가족 건강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오정옥(1999)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성격형성 및 사회적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지형(2006)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은 대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하진·김정옥(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건강성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영향을 미쳤고, 이영재(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신감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성공기대와 같은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효능감 개념 및 관련 연구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처음 제안한 Bandura(1977)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된다(이순정, 2010).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앞서서 결국은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점차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행동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김혜영, 2008; 이순정, 2010).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및 이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 이론에서는 외적자극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인지적 재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러 인지적 과정을 대표하는 중심개념이 자기효능감이다(이순정, 2010).

한옥란(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상호신뢰, 안정적 애착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준혁(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치관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지각할 때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양점도·박영국(2009)의 연구에서 가족요인, 또래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 성숙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명실(2007)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와 Betz(1983; 김행수, 2009에서 재인용)은 진로미결정과 진로 의사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진로 상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nt와 Hackett(1994; 김행수, 2009에서 재인용)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선택 폭이 제한되고 있고 진로에 대한 애착이 낮다고 하였다. 김혜영(2008)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한 자기효능감 신장은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이숙경, 2011), 낮은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기피하게 만들어 진로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꺼리게 만들 수 있다(박수길,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가족건강성 및 진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진로(Career)란 개인의 생애 진로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개인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기대감을 포함한 일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활동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발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정의된다(조화경, 2006; 이순정, 2010).

김현철 등(2005)은 진로 계획 및 준비 영역의 하위 지표로 진로목표 설정여부, 진로계획 수립경험여부를 조사하였고, 진로준비 실행 여부의 하위 영역으로 직업체험 경험, 교육 훈련 경험, 상담실 찾은 경험, 이력서 작성 경험을 조사하였다.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 영역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책임과 자기결정에 관한 주도성,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직업 특성의 이해, 전문기관 상

담 및 방문 여부에 관한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 행동, 진로목표 설정, 직업선택도 등을 조사하였다. 남궁정(2004)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으로 결정성, 독립성, 계획성, 직업능력, 직업계획, 적극성, 직업세계정보, 진로의사결정을 조사하였다.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조민제, 2010 등). Super(1957; 이순정, 2010 재인용)은 진로발달의 단계를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5세), 은퇴기(65세이후)로 구분하였고,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바탕으로 자아검증과 직업적 탐색을 수행하며 확립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진로가 성숙해진다고 보았다.

청소년기는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한 조민제(2010)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취업불안 높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인은 양경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미숙(2008)의 조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일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영락·임성택(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헌신, 존경요인이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었다. 진로성숙도는 자아정체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박수길(2001)연구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의 요인별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적응력과 진로계획 능력도 높았다. 박아청·신순란(1999) 조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미래 확실성과 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 전공과 관련된 요인도 진로성숙과 관

련이 있는데, 양명제·박명지·김희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직업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성숙도가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전공-흥미와 같은 개인 특성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관계와 같은 가정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전라남도 소재 대학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14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대학생은 임의표집을 하였으며 답변이 부실한 39부를 제외한 461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19.0의 t-Test, 일원배치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 분	N	빈도(%)
성별	여자	204	44.3
	남자	257	55.7
연령	19~21세	135	29.3
	22~23세	147	31.9
	24세이상	179	38.8
출신고교 유형	인문계고교	260	56.4
	전문계고교	196	43.6
학년별	1학년	144	31.2
	2학년	193	41.9
	3,4학년	124	26.9
학 과 만족도	불만족	75	16.3
	만족	314	68.1
	매우만족	72	15.6

〈표 1〉 계속

특성	구 분	N	빈도(%)
가족 경제수준	하	54	11.7
	중하	125	27.1
	중	235	51.0
	중상 (상)	47	10.2
진로상담 유 무	무	180	39.0
	유	281	61.0
전공계열	사회과학	217	47.1
	자연과학	124	26.9
	교육.보건계열	120	26.0

성별은 남자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연령은 '24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출신고교는 '인문계 고교 출신'이 '전문계 고교 출신' 보다 많았다. 학년은 '2학년'이 가장 많았고 학과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많았으며 가족경제수준은 '중'이 가장 많았다. 진로상담은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았고, 전공계열은 '사회과학'이 다른 계열보다 많았다.

2. 조사도구

1) 가족건강성 척도

이은주·유영주(1995), 이영재(2008), 김현주·이혜경(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건강화목성, 가족유대감, 가족적응성, 헌신성,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2였다.

2) 자기효능감 척도

차정은(1997), 김현숙(2001), 김영상(2009)의 설

문지를 참고하여 과제수행능력,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을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는 0.91였다.

3) 진로성숙도 척도

김현철 등(2005), 남궁 정(2004), 심일보(2008), 조민제(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직업특성 이해를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는 0.79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실태

조사대상자가 평가한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수준은 <표 2>와 같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보통 이상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헌신성, 가족 화목성, 가족 간의 적응성, 긍정적 의사소통, 가족 유대감 순으로 높았다. 자기효능감 수준도 보통 이상의 수준이였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문제해결 및 적응력, 과제 수행능력, 자신감 순으로 높았다. 진로성숙도도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독립성, 결정성, 준비성, 직업특성이해 순으로 높았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모두 보통 이상이였으나 하위 영역에서 자신감이 낮고 직업특성 이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실태

변인	하위요인	M(항목 평균)	S.D	M	S.D
가족 건강성	가족화목성	19.42 (3.88)	4.28	23.89	6.82
	가족유대감	24.84 (3.55)	5.79		
	가족적응성	26.03 (3.72)	5.65		
	현신성	23.93 (3.99)	4.07		
	긍정적 의사소통	25.23 (3.60)	5.47		
자기 효능감	과제수행능력	17.20 (3.44)	3.22	20.80	1.45
	자신감	20.24 (3.37)	3.85		
	문제해결 및 적응력	24.98 (3.56)	4.59		
진로 성숙도	결정성	21.25 (3.54)	5.15	21.59	2.92
	준비성	23.89 (3.41)	4.90		
	독립성	21.50 (3.58)	4.34		
	직업특성이해	19.75 (3.29)	4.09		

2.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1)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은 성별, 연령, 출신교 유형, 학과만족도, 진로상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3>.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많은 대학생이 연령이 적은 대학생보다, 인문계 고교 출신보다 전문계 고교 출신이, 학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이나 불만족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이 사회과학이나 교육, 보건계열의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조사한 서하진·김정옥(2009), 강소라·박혜인(2001)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나므로 여학생 대상의 가족건강성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학년, 전공에서의 결과는 서하진·김정옥(2009)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문계 고교 출신보다 전문계 고교 출신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도 고등학생 대상의 양남희·하윤주(2008) 조사에서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표집과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3)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특성	구 분	N	M(SD)	t(F)	Duncan
성별	여자	204	115.58(21.77)	-3.38***	
	남자	257	122.54(22.11)		
연령	19~21세	135	114.27(20.93)	6.13*	a
	22~23세	147	115.23(21.63)		a
	24세이상	179	126(21.71)		b
출신교 유형	인문계고교	260	117.57(22.23)	-2.09*	
	전문계고교	196	121.91(22.00)		
학년	1학년	144	118.58(21.88)	2.21	
	2학년	193	121.26(23.13)		
	3,4학년	124	117.69(21.06)		
학과 만족도	불만족	75	114.21(22.10)	14.68***	a
	만족	314	117.90(21.67)		a
	매우만족	72	131.74(20.58)		b
가족 경제 수준	하	54	116.94(27.70)	1.80	
	중하	125	114.42(23.02)		
	중	235	121.44(21.10)		
	중상(상)	47	125.87(18.45)		
진로 상담	무	180	115.39(22.04)	-3.18***	
	유	281	122.07(21.96)		
전공 계열	사회과학	280	116.86(21.11)	11.00***	a
	자연과학	181	125.27(23.14)		b
	교육보건계열	120	118.18(22.25)		a

*p<.05 **p<.01 ***p<.001

2)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년, 학과만족도, 진로상담유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4>.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3, 4학년의 자기효능감이 1, 2학년의 자기효능감보다 높았고 학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이나 불만족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진로상담을 받은 대학생이 받지 않은 대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이 사회과학이나 교육보건계열 학생보다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숙정(2011)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여학생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

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경제수준도 다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김미숙(2008)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차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과만족이 낮은 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은 이숙정(201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 학업성취, 대학생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학과만족이 낮은 경우 학습몰입, 학업성취, 대학생생활적응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과만족도가 낮은 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

<표 4>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특성	구 분	N	M(SD)	t(F)	Duncan
성별	여자	204	59.14(10.01)	-6.00***	
	남자	257	65.02(10.77)		
연령	19-21세	135	59.19(9.63)	2.52	
	22-23세	147	60.96(9.16)		
	24세이상	179	66.06(11.89)		
출신교 유형	인문계고교	260	62.03(10.23)	-.88	
	전문계고교	196	62.93(11.57)		
학년	1학년	144	61.23(10.63)	13.19***	a
	2학년	193	64.54(10.82)		a
	3,4학년	124	62.42(10.83)		b
학 과 만족도	불만족	75	60.09(10.40)	21.60***	a
	만족	314	61.30(10.17)		a
	매우만족	72	69.74(11.21)		b
가족 경제 수준	하	54	61.00(14.63)	1.02	
	중하	125	60.38(10.16)		
	중	235	63.36(10.38)		
	중상(상)	47	64.77(10.83)		
진로 상담	무	180	60.14(10.89)	-3.63***	
	유	281	63.88(10.56)		
전공 계열	사회과학	217	61.36(10.15)	19.99***	a
	자연과학	124	66.03(11.00)		b
	교육보건 계열	120	60.60(11.06)		a

***p<.001

3)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진로성숙도는 성별, 학과만족도, 진로상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5>. 남자의 진로성숙도가 여자보다 높았고, 학과만족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 만족이나 불만족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계열은 자연과학계열의 학생이 사회과학계열이나 교육보건계열의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만족이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양명희 등(2010)의 연구에서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직업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모두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전공만족도와 직업흥미가 높아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전공-흥미와 직업 흥미를 일치시키는 진로상담과 교육이 특히 여학생과 비자연과학계열 학생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특성	구 분	N	M(SD)	t(F)	Duncan
성별	여자	204	83.39(13.27)	-4.07***	
	남자	257	88.77(15.02)		
연령	19~21세	135	83.30(14.06)	.31	
	22~23세	147	85.54(12.81)		
	24세이상	179	89.41(15.59)		
출신교 유형	인문계고교	260	86.48(13.96)	.15	
	전문계고교	196	86.27(15.21)		
학년	1학년	144	85.26(14.71)	3.33	
	2학년	193	87.84(14.48)		
	3,4학년	124	85.43(14.22)		
학 과 만족도	불만족	75	82.16(12.36)	28.89***	a
	만족	314	84.87(13.79)		a
	매우만족	72	97.43(14.57)		b
가족 경제 수준	하	54	84.20(18.37)	.01	
	중하	125	85.76(14.59)		
	중	235	86.90(13.79)		
	중상(상)	47	88.00(12.77)		
진로 상담	무	180	83.70(14.14)	-3.23**	
	유	281	88.11(14.49)		
전공 계열	사회과학	217	85.61(14.40)	8.89***	a
	자연과학	124	89.60(14.03)		b
	교육보건계열	120	84.47(14.75)		a

p<.01 *p<.001

3.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1)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와 같다.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과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유대감과 진로독립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관계는 유의하였다. 가족의 유대감이 높은 경우 가족의 지지를 높여 진로 독립성을 높

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독립성을 저해하여 진로성숙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 하위 요인과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진로준비성이었다. 가족 간에 긍정적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 진로준비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건강성의 하위 요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및 적응력 간의 관계가 가장 높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족의 청소년은 문제해결 및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과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의 관계에서는 문제해결 및 적응력이 진로준비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진로준비는 문제해결 및 적응력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세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최저 0.312에서 최고 0.490의 관계를 보였고,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는 최저 0.181에서 최고 0.417,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는 최저 0.369에서 최고 0.648의 관계를 보였다. 세 관계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가 가장 강하고 다음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높으며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2) 가족건강성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와 같다.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의 2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이었으며, 다음은 가족의 헌신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준혁(2010)의 연구에

〈표 6〉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N=46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0											
2	.573**	1.000										
3	.600**	.707**	1.000									
4	.715**	.805**	.742**	1.000								
5	.650**	.821**	.746**	.811**	1.000							
6	.312**	.420**	.394**	.451**	.379**	1.000						
7	.338**	.429**	.450**	.490**	.418**	.803**	1.000					
8	.366**	.392**	.406**	.456**	.376**	.765**	.797**	1.000				
9	.232**	.214**	.215**	.280**	.212**	.473**	.512**	.502**	1.000			
10	.263**	.415**	.384**	.417**	.334**	.587**	.648**	.543**	.601**	1.000		
11	.331**	.243**	.269**	.342**	.294**	.485**	.469**	.575**	.546**	.461**	1.000	
12	.232**	.080	.181**	.173**	.188**	.381**	.369**	.409**	.446**	.325**	.522**	1.000

1=가족적응성, 2=가족유대감, 3=가족헌신성, 4=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 5=가족화목성, 6=과제수행능력, 7=문제해결 및 적응력, 8=자신감, 9=진로결정성, 10=진로준비성, 11=직업특성이해, 12=진로독립성

p<.01, *p<.001

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가족건강성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F
자기 효능 감	가족적응성	-.002	-.001	0.263	33.803***
	가족유대감	.183	.098		
	가족헌신성	.470	.176**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	.710	.359***		
	가족화목성	-.198	-.078		

***p<.001

3) 가족건강성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표 8>과 같다. 가족건강성은 진로성숙도의 16.2%를 설명하였으며, 하

위 요인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진로성숙도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고,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이며,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진로성숙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표 8〉 가족건강성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F
진로 성숙 도	가족적응성	0.26	0.101	0.162	17.588***
	가족유대감	-0.10	-0.040		
	가족헌신성	0.37	0.104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	0.74	0.279**		
	가족화목성	-0.31	-0.009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전남지역의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461부를 SPSS 19.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건강성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고, 헌신성, 화목성, 가족적응성, 긍정적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유대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의사소통과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대학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성별, 연령, 출신고교별, 학과만족도별, 진로상당유무,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연령이 많은 대학생, 전문계 고교 출신 학생이 인문계 고교 출신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자기효능감도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문제해결 및 적응력이 가장 높았고 과제수행능력, 자신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년별, 학과만족도, 진로상당유무,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학년이 높고 학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이 다른 계열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셋째, 진로성숙도의 수준도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을 보였으며 하위 요인에서는 독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결정성, 준비성이 높았으며 직업특성 이해가 가장 낮았다. 직업의 특성 이해

를 높이기 위해 현장 체험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성별, 학과만족도, 진로상담유무,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 자연과학계열 학생이 타 계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로지도를 함께 있어 진로상담 참여를 증가시키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며 성별, 계열별로 진로지도가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건강성 중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 요인은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 중 진로준비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문제해결 및 적응력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 및 적응력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진로준비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대학생의 진로를 지도할 때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 중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 가족의 헌신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진로지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더 높아졌다.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며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성숙도를 높여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가정의 중요성이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업 뿐 아니라 가족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헌신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 및 적응력,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도록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소라·박혜인(200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건강도 지각 관련 변인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 27호, 19-37.
- 2) 권대회·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3)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4) 김미숙(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영상(2009). 대학생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행수(2009).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현숙(200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현주·이혜경(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청소년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0.
- 10) 김현철·김신영·김진호·송병국·임성택·임영식(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측정도구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11) 김혜영(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남궁 정(2004). 청소년을 위한 진로성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7(2), 73-91.
- 13)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 14)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박아청·신순란(2000).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 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17(1), 39-66.
- 16) 서하진·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4(3), 141-178.
- 17) 심일보(2008). 대학생의 특성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양경숙(200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양남희·하윤주(2008).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의 영향변인. 한국가정과학회지, 11(1), 63-71.
- 20) 양명희·박명지·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21)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22)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4(2),

- 153-172.
- 23) 양점도·박영국(2009). 가족요인과 또래지가 자기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11-235.
 - 24) 윤중희(2006). 건강지원사업에서 가족-중심개입을 위한 개념모형 연구: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115-126.
 - 25)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 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숙정(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27) 이순정(2010).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이영재(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가 미래성공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지형(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이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이혜경(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장범식(2007).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3) 조민제(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조화경(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기능과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36) 진준혁(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8)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9) 한국교육개발원(1992). 중학생의 진로교육.
 - 40) 한옥란(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한국대학신문(2011). 대학생 자살 연평균 230명. 2011.05.27. 사회면.
 - 42) Bandura, Albert(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43) Lent, R., Brown, S. & Hackett, F.(1994). Toward a unified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cademic interests,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44) Super, D. E.(1953). A theory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45)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투 고 일 : 2012년 6월 26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9일